

본질이 변화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2018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목대원 졸업감사예배



목대원 대성전에서 드려져 땅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신학원 이사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총회장 임웅재 목사, 신학원장 임종달 목사, 교수진, 중진목회자들과 성도,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대학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회신학교 교수 정문기 목사의 대표기도, 최병진 목사의 성경봉독, 이사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눅 6:43-4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돌감람나무를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으며 이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가치를 절박함을 통해 야만 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남으로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는 참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남으로 본질이 변화되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앞길을 축복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학사보고,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의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단 중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박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종으로 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하했다.

임종달목사는 졸업생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재학생 대표 김문숙 전도사의 송사, 졸업생 대표 김진숙 전도사의 답사, 졸업생 대표 박영진 전도사는 학교에 기념품을 증정했다. 예배는 사회자의 광고,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축도로 졸업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목양칼럼

최근 대통합의 진상을 밝힌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교단이 사분오열된 시점에서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서대문총회(총회장 정동균 목사)가 11월 20일 통합총회를 하고 마침내 대통합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광고를 게재한 부분에 대한 총회원들의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밝혀진 사실을 알려드리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화문총회는 지난 9월 5일 여의도총회로부터 4개 교단(광화문, 여의도, 신수동, 서대문)의 대통합을 제안 받고 △비대위(서대문) 총회회관 매대대금 265억 사용 내역 투명공개 선결 후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통합의 결의가 뒤따라야 할 △현재 교역자 연금문제가 미결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대출로 인한 재정손실의 책임소재 및 원금보전 후 교단통합을 다뤄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월값에 매각된 총회회관 265억 매대금 내역은 밝혀지지 않은 채, 또한 연금법인의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금 중 39억 원(재단법인 이사장 통장으로 불법대출 입금된 금액) 보전을 위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한 건은 취하와 가압류 해제 등으로 연금공제회 2천여 명의 회원 1인당 평균 약 350만 원 상당의 원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손실된 연금에 따른 연금가입 목회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묵과하면서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또한 11월 12일자 광고를 통해 기하성(광화문 측) 통합 위한

취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이호선, 이중화 목사가 입장을 낸 것은 광화문총회 임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3일 광화문총회 제3회 실행위에서 ‘광화문 총회의 대통합 공식 입장을 공론화하기도 전에 통합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위원장 및 재단가입협의회의 회장 자격이 박탈된 자들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대통합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라는 제하에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 이태근 목사, 정동균 목사 총무 엄진용 목사, 송시웅 목사, 조남영 목사(Y 그룹 측), 이호선 목사(K 그룹 측), 이천영 목사(S 그룹 측) (2018년 11월 20일) 이라고 국민일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

여의도순복음 측(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서대문총회 측(총회장 정동균 목사) 두 교단이 통합하였는데 통합된 교단에 교단총무가 두 사람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Y 그룹 측, K 그룹 측, S 그룹 측 은 마치 그룹회사 합병처럼 보인다.

특히 교역자연금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금가입자들의 피와 땀 같은 연금에 손대는 자는 금수(禽獸)만도 못한 자이며, 연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일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 되고 만다.

‘성도들의 보배’



조용목 목사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으니까...”(신 26:18~19)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가리켜 ‘보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보배’라고 번역된 용어들이 사용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을 지칭하는 이름과 성도들이 소유하는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여줍니다(신 26:18,19)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며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줍니다. 그 피의 가치와 능력과 귀중한 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속하시려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둘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지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는 지식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성령강림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외에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보다 더 보배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지식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꾀계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며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칭찬과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지극히 보배로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 주실 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시달리며 겨우 생명을 부지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니움을 입을 때 하신 말씀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나올 것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믿음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넷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혹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들 중에 압권은 죄 사함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셨고 또 이를 상기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진실과 선함과 인내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지식을 가졌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역자연금사고비상대책 연 합 기 도 회

- 일 시 : 2019년 1월 8일 (화) 오전 11시
- 장 소 : 신수동 총회 회관교회
- 주 소 : 서울마포구 신수동 56 순송 학원 빌딩

3개교단 교역자 연금사고 비상 대책 위원장
기하성 광화문총회장 함 동 근 목사
기하성 신수동총회장 김 서 호 목사
예하성 총 회 장 임 웅 재 목사

교역자연금공단 이사장의 관리 부족으로 연금지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미 법적 수속을 하고 있으나 모여 기도하고자 소집하오니 가입자되시는 교역자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한기연, 제8대 대표회장 취임예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화합·연합·통합을 위해 노력 하겠다”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2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교계, 정관계, 언론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섬김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김효중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박만수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서기 김병근 목사의 성경봉독, 군포제일교회 찬양대의 찬양, 원팔연 목사(전주배움교회 원로)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태준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홍종자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기독교연합회의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해’ 박남수 목사(공동회장)가, ‘대표회장 및 임역을 위해’ 유안근 목사(공동회장)가 특별기도한 후 김윤기 목사(영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원팔연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 제하의 설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혼탁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기 때문”이라며 “대표회장에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가 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이기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축하예식은 박요한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개식사에 이어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를 소개하고, 이어 양병희 목사(4대 대표회장)가 권면을, 이동석 목사(직전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송대선 목사(한정중 대표회장)와 원종문 목사(한민족통일연합회 이사장)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군복음화 소망, 제2회 군선교의 밤 개최

미래군선교네트워크 대대급 교회 대상으로

미래군선교네트워크(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대대급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선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2회 군선교의 밤을 지난 12월 12일(수) 서현교회(담임 이상화 목사)에서 진행했다.

이날 군선교사 140명과 서현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여 1부 예배, 2부 사역보고, 3부 작은 음악회를 드렸다.

1부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남송현 목사가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하였으며 2부에는 후원하는 군선교사 중 은퇴하는 박찬덕, 김용식 군선교사에게 공로패와 금일



봉을 전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축사로 이필섭 장로와 최석환 군종 목사, 배홍성 목사가 군선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말로 축하하였다.

3부 순서로 작은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 독주, 팬플룻, 소프라노와 바리톤, 색소폰 연주로 군선교의 밤에 주인공인 군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다.

지구촌에 흠어진 한민족에게 복음을

(사)코디엠 창립총회 및 연구소 개소

지구촌에 흠어진 8천5백만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자는 비전을 품고 있는 ‘(사)코디엠창립총회’가 지난 12월 8일(토)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있는 코디

엠 국제본부에서 코디엠연구소(연구소장 성기호 목사) 개소식과 함께 거행했다.

이 날 행사는 예배와 창립총회, 코디엠연구소 개소식, 축하행사 순으로 순서가 진행됐다. 윤성철 목사(대동교회)의 사회로 시작

된 1부 예배에서는 전승환 목사(장호원반석교회)가 기도를 했으며, 성기호 목사(전 성결대 총장)가 “온전한 복음과 구원” (살전 5:23-2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철용 목사(장신교회 원로)가 축도를 맡았다.

이어 김영택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2부 창립총회에서는 개회선언과 함께 설립취지 채택, 정관 심의, 이사장 및 임원 선임, 이사 위촉 등이 있었으며, 이종동 목사(서울총신교회)가 이사장에 선임됐다. 3부 연구소 개소식에서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위촉이 있었고, 마지막 3부 축하의 시간에는 영상 경과보고와 축하 메시지, 축사(강의구, 이종복, 문형준, 이강준, 정길진 목사)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에 5만 불 지원

월드비전, 순다 해협 쓰나미피해 지역 이재민 위해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이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피해지역에 긴급구호자금 5만 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2일(토) 저녁 9시경,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과 자바 섬, 수마트라 섬에 쓰나미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BP)는 이로 인해 현재까지 281명이 사망했으며, 약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23일 곧바로 피해 지역에 피해 조사팀을 급파, 피해 규모를 확인하여 재난 규모 ‘카테고리1’을 선포했다. 카테고리1은 피해자가 10만 명 미만 일 때 선포하는 월드비전의 재난 규모 등급이다.

이에 한국 월드비전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5만 불의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 월드비전이 전달한 후원금은 재난을 경험한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아



동심리보호센터 운영, 아동과 여성을 위한 위생보건 사업,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월드비전이 현지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중심으로 총 3백만 불(한화 약 33억) 규모의 구호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월드비전 순다 해협 쓰나미 긴급구호 총

괄 책임자 베비타 드위(Bevita Dwi)는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비극이다. 월드비전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제15회 신학세미나

예영수 박사, 김성기 박사 강의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12월 11일(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란 주제로 제15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수신학 학

산 활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통총회 백정준 목사의 사회로 제자총회 김성립 목사의 기도, 문화예술위원 김미선 목사의 성경봉독,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별찬양, 새일꾼

선교회 총회장 한치호 목사의 출 37: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명하여 부르시라’라는 제목의 설교, 김영아 교수의 한금송, 호헌총회 박금옥 목사의 한금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씀,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예장(개혁합동) 총회장 임준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홍교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신학세미나를 통해 협회회원, 교단 모두 어려운 형편 속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동역자들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적 충전을 받아 다시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총연, 제14회 정기총회 은혜로이 성료

이사장 유영섭 목사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유임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하 예총연) 제14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4일(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예총연 회원 26개 교단 4개 단체 100명의 총대 중, 23개 교단 4개 단체 9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대표회장에 강용희 목사를 유임시키고 14회기 사업계획을 심의 및 처리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남윤국 목사(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 회장)의 인도로 이하영 목사(아베 총회장)의 기도, 문인주 목사(합동예총 총무)의 성경봉독, 이문숙 사모의 특별찬양에 이어 강용희 목사가 호 6:4-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알자’ 제하의 설교말씀을 전했다.

강용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우정은 목사(상임회장)의 개회기도, 문인주 목



사(서기)의 회원점명, 강용희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전회의록보고 연혁보고, 이사회보고, 행사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 보고, 신학협의회 보고,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인건으로 상정된 2019년 예산과 행사계획이 통과됐다. 인사위원회에 의해 이뤄진 임원선출 결과

이사장 유영섭 목사,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 등 주요 임원들이 그대로 유임됐고, 신하 기교협(회장 남윤국 목사), 신학협(회장 강진명 목사) 외에 새롭게 선교협의회를 신설해 회장에 이하영 목사를 선출했다. 총대들은 이를 만장일치 인준함으로써 힘을 실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취임예배

김은섭 총회장, “개혁 통해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겠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은섭 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12월 17일(월)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총회장 김은섭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이제는 진실로 교단을 개혁할 때가 됐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총회장 자리나 보전하는 그런

총회장이 되지는 않겠다.”며, “교단의 개혁을 통해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서기 홍택주 목사의 사회로 전 부총회장 한영복 목사의 기도, 남신교회 연합회장 백승일 장로·실행위원 정암 장로

의 성경봉독, 영문서기 최태성 목사의 복음서 낭독, 중앙루터교회 중창단의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루터대 전 총장 박일영 목사는 요 15:5-8 말씀을 본문으로 한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무력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영광을 공급받게 된다.”면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오히려 건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루터단 공동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계속된 취임예배는 전 총회장 이흥렬 목사의 축사, 부총회장 김진환 목사의 광고 후, 루터회 원로 박성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기독언론협회, 제15회 정기총회

심임회장에 문병원 국장 선출

한국교회의 창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 언론의 발전을 이끄는 (사)한국기독언론협회가 지난 12월 7일(금) 10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심임 회장에 한국교회공보 문병원 국장을 선출했다.



김만규 목사(기독신보)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면서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독교 언론이다.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전진하는 새해가 되자”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업보고와 회계보고에 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문병원 국장, 부회장에 윤광식 국장 등을 선임하는 등 15회기를 이끌어갈 임원 조각을 완료했다.

동 협회의 신 임원은 △회장 문병원 국장(한국교회공보) △부회장 윤광식 장로(한국기독일보) △총무 이재환 국장(개혁공보) △서기 최선된 국장(크리스찬신문) △회계 이춘숙 국장(월드미션신문) △감사 김형원 국장(크리스찬한국신문) 등이다.

신임 회장 문병원 국장은 “우리 언론협회가 한국교회 언론을 주도하며 향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독교 언론의 존립을 위한 광고 수익 창출에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12차 조찬기도회

“성평등정책 그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돼...”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7시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에서 2018년도 제12차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정기목인들과 회원들이 단합하여 충남인권조례안을 폐지시키게 된 것을 감사하고 더욱 힘을 모아 그릇된 성평등정책을 폐지시키자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의 사회로 이세영 장로의 대표기도,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설교,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두영 목사는 수 1:5-6 말씀을 본문으



로 한 설교를 통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지역을 잘 감당함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안정 가운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항상 큰 힘이 되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부 보고회는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사회로 자문위원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국정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현안배 시의원의 시정활동보고 후에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손혁 목사와 비른인권위원회 위원장 장현원 목사가 공지사향을 전달했다.

3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문 인기석 목사가 ‘기원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 박해서 장로가 ‘성평등정책반대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하고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인사말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12월 17일(월) 부인순복음교회(담임 홍종학 목사)에서 기도회 및 송년회를 갖고 지방회와 교단,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심혜원 목사의 대표 기도,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박 목사는 한해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한 회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기도회를 마친 후 부안 내변산의 직소폭포를 산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즐기며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비결’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12월 11일(화) 평안교회(담임 노우석 목사)에서 2018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성기는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순구 목사(시립이념지는교회)의 기도,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황수만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살전 5:1~11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디기 힘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구원의 목적을 가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우석 목사(평안교회),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소영진 목사(부순복음교회),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 안종식 목사(공주제일순복음교회)가 기도를 인도했으며,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회원 상호간 발전을 위한 회의 후 평안교회(담임 노우석 목사)에서 준비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안부와 담소를 나누었다.

부산신학교 2018년 제2학기 종강예배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 부산신학교(학장 한명진 목사)는 지난 11월 29일(목) 저녁 7시 2018년 제2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고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조은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전학장 고영권 목사의 은 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깨우는 소리’라는 제목의 설교, 정기영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고 목사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



자들이 다 되어서 귀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배움의 열정을 불태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전한 교수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8학년도 제18회(본 교단 제64회) 졸업식

전북신학교

예하성전북신학교(학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11시 전라북도 전

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예하성전북신학교 대예배실에서 졸업식을 갖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들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예배는 김바울 목사(정을 은혜외전리교회)의 사회로 황인곤 목사(순복음

전주세계로교회)의 대표기도, 학장 최병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계 1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믿음의 지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다하 교학주임의 학사보고, 최병진 목사의 졸업장 및 상증 수여, 신학생 전원의 특송, 전북서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축사, 전북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격려사, 조병기 목사(순복음열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졸업식에서 김광임 외 1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박성현 전도사가 학장상을, 김미정 전도사가 전북지방회장상을, 전숙희 전도사가 전북지방회장상을 치미화 전도사가 동문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제직임직 및 송년예배, 화목한 삶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2월 18일(화) 오전 11시 오정사랑교회에서 제직임직 및 송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경호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기도, 재무 정세창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나경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고후 5:18-21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임직식은 오정사랑교회 박흥열 목사의 인도로 서약과 공포, 임직증서와 패를 증정하고 권사로 임직받은 조순복 권사는 열심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섬김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으며 이어 증경회장 김남순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의 권면, 회계 표현자 목사의 헌금 기도, 박흥열 목사의 광고,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3부 순서에는 월례회를 겸한 송년회의 선물과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풍성한 만찬으로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특별히 이날 우리 교단을 이태했던 3명의 목사가 다시 돌아와 기쁨이 두 배로 더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2019년에도 발전하는 지방회가 되길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2월 10일(화) 남원 임마누엘교회(담임 송귀여 목사) 수양관에서 송년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강욱 목사의 사회로 증경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외전리교회)의 대표기도, 증경지방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안국교회)의 설교, 증경지방회장 김중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축도 및 식사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마 25:14-30 말씀을 본문으로 ‘맡겨진 달란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



리에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남겨 주님께 영광돌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2부 월례회에서 각종 회부를 처리한 후 남원임마누엘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함

께 나누며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하고 한 해 동안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다시 한하여 2019년에도 발전하는 교단과 지방회를 이루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⑦ 센터(인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⑥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 사무실 031-422-3735,
- 상담소장 010-4377-2842)

■ 생명의 말씀 ■



김종열 목사

· 서울강남지방회 중경회장
· 참사랑교회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 흉년이 들 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므로 창 15:13절 말씀이 성취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창 15:13)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 200여 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건너에 보이는 모압에서 임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맞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5-6)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가 30리 거리에 있는 싯딤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1.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십니다.(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수 3:7)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이스라엘도 알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듣고 있

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위협을 하지는 의도입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만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림의 떡 같은 곳입니다.

장마로 인해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게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수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권위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가졌고 가나안 족속은 발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 강성한 일곱 족속들도 능히 물리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웁니다.(수 3:8-9)

“너는 언약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라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수 3:8-9)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물이 범람하여 아무도 건널 수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상향을 보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는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은 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목전에서 물을 끊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권위를 주기 위함이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3.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수 3: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수 3:10)

언약제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끊을 때 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이사건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히 원주민 일곱 족속도 물리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무리를 따라 가다가 물이 왜 끊어졌는지 모르고 강을 건

너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중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물으로 올라오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시므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타파하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므로 생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교회부흥에 갈급하여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부흥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바며 모든 교회가 목표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회부흥을 목표표로 세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중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가득하고 나는 없는 것과는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죠”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있는 강단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없어 머뭇거리고 떠나갔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동 정

기지협 성탄 맞아 이웃과 사랑을



한국기독교지도

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가 지난 12월 8일(토) 서울시 용산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성탄절을 맞아 이웃조청찬지를 개최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랑의 선교를 실천했다. 용산구와 함께 하는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와 지역의 노숙자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매김하고 있다.

일기연 회장에 박동찬 목사



일산기독교연합회(일기연)가 지난 12월 18일(화) 일산동구 풍동 일산광림교회(담임 박동찬 목사)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박동찬 목사와 신임원진을 구성했다. 일기연은 올 한 해 동안 일산지역에서 성전 건축과 포교활동에 나서려던 이단정단 신전지를 저지시키는 활동에 매진해왔다.

한남대 학생들, 해외봉사



한남대(총장 이덕훈) 재학생들 65명이 겨울방학 기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떠난다. 한남대는 지난 12월 20일(목) '2018학년 동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여정에 올랐다. 봉사단은 12월 27일(목) 출국해 2019년 1월 30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봉사과 노력봉사활동을 펼친다.

영동회 대표회장에 정상업 목사



한국기독교영동회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22일(토) 서초호민교회(담임 신석 목사)에서 열려 대표회장에 정상업 목사, 상임회장에 노수우 목사, 운영회장에 박철구 목사 등을 선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을 것을 다짐했다. 제36대 대표회장 취임식, 신년하례식은 2019년 1월 22일 CTS 11층 컨벤션홀에서 드릴 예정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가짜뉴스 논쟁이 있는 언론사가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2월 19일, 제20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으로 한겨레신문의 ‘가짜 뉴스의 뿌리를 찾아서’(이하 한겨레 팀)의 취재팀(김완 변지민 박준용 장나래)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 한겨레 팀은 4회에 걸쳐 소위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하여 밝혀냈으며 “에스더기도운동”을 배후로 지목하였었다. 즉 소수자 혐오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을 추적하였는데 이것이 기독교 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언련은 이를 밝힌 공로를 인정하

여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보도의 정확성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한겨레가 보도하여 지목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는 증거가 부텨이며, 이에 대하여 한겨레 기자들과 공개토론을 하지도 제안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자 자신들의 명예 훼손과 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송 중이고, 오죽하면 한겨레의 보도로 “한겨레 가짜뉴스 파헤쳐 모임”까지 결성된 상황인데 민언련이 한겨레 팀에게 언론

본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뭔가 찜찜하고 전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렇게 되면 민언련이 한겨레 팀에게 언론상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언론의 교만함에 대하여 언론권력 세력들까지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된다. 또 자칫하면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언론은 성실하게 사실을 알려 언론수용자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가짜 뉴스’를 논하면서 그것이 왜 가짜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런 언론에 대하여 상을 수여한

다는 것은 이 상을 주는 단체와 관계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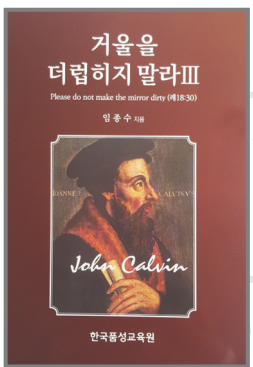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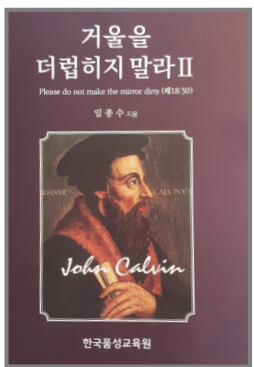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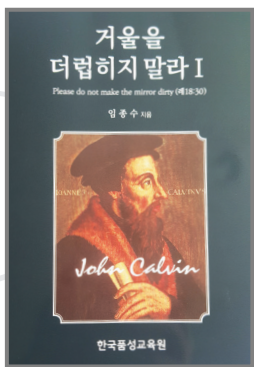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요, 그들만의 리그요, 그들만의 나라인 것이다. 이 민언련 상의 심사위원을 보아도 공정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관계된 사람이 3명, 한국여성단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한국피디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각 1명씩 참여하고 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또 취재와 탐사과정에서 잘

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한겨레 팀과 그 언론에 상을 주는 것은 언론 권력 기관의 횡포를 넘어 전횡(專橫)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사회적 어두운 그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한 언론이 상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는 언론도, 언론권력기관들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수준’ 만이라도 지켜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전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밝힐 것”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뉴스앤조이에 대한 기자회견
▶ 일 시 : 2018. 12. 26(수)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에 반대활동을 비난하고,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뉴스앤조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뉴스앤조이는 평소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를 적극 게재하였다.

특히 최근 뉴스앤조이는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스앤조이는 동성에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뉴스앤조이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정면 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것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원평 교수, 한효관 대표, 박성제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이 발언하며, 홍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와 예정할신 동성애대책위원인 김선우 목사 등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 12. 24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어서와! 한국 겨울은 처음이지?”…겨울 의류 전달

백석대 제3세계 유학생 대상 겨울 나눔행사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11시 40분 교내 글로벌외식관 식당에서 ‘어서와! 한국 겨울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제3세계 유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첫 겨울을 보내는 제3세계(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유학생들

에게 따뜻한 겨울 의류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평생교육원 ‘백석 글로벌 여성 CEO 과정’ 4기 수료생들이 기탁한 발전기금으로 준비됐다.

행사장에는 유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장터도 열렸는데, 백석 글로벌 여성 CEO 과정 4기는 물론 교직원들과 백석대학교에서도 동참해 마음을 더했다.



나눔장터에는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잡화, 대학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 등이 준비됐다.

백석대 정정미 학사부총장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바람을 만든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여러분들의 배움이 본국에 돌아가 큰 바람이 되어 발전을 이룰 것을 기도한다.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 한국 재학생들이 세상을 넓게 보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선물을 받은 인도출신 맘마 씨(Mamma, 19·여)는 “저희를 위해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시절 선진국들의 후원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진사랑의 빛을 갚고자 ‘제3세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학년도부터 11개 국 총 16명의 유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탄 선물”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성탄 선물”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산타들이 명동 거리로 나섰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가 지난 12월 21일(금) 오전 명동 중앙로에서 이색적인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장기기증의 숭고한 뜻을 홍보하고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됐다.

행사에는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몸짱’ 열풍을 불러온 대한민국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이자 인기 연예인들의 스포츠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건강 전도사’ 아놀드 홍을 비롯해 20명의 남·여 트레이너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현역 해병으로 연평도에서 근무 중인 박규남 상사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산타로 변신한 참가자들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상반신을 탈의한 채 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을 뜻하는 상징인 ‘조목리본’과 생명나눔의 고귀한 가치를 전하는 ‘생명의 물결’ 등 장기기증 관련 각종 티셔츠를 몸에 붙이고 명동 거리를 홍보했다. 특별히 지난 10월 진행된 ‘2018 생명나눔 아이디어 공모전’ 슬로건 부문 수상

자인 ‘빈손으로 왔다가 9명을 9하고 갑니다’, ‘장기기증이 일으키는 최고의 기적’ 등 장기기증 홍보 슬로건도 함께 몸짱 산타의 몸을 장식했다. 이들은 명동 중앙로를 따라 내려오며 ‘생명나눔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물해주세요’,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선물을!’, ‘크리스마스에는 장기기증 서약해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지난 2015년 본부의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임명된 뒤 매년 말 동료 트레이너들과 함께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 아놀드 홍은 “지속적으로 본부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동참하면서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며 “건강한 몸을 가진 트레이너들이 건강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의 참된 가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올해 처음 참석한 박규남 상사 역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함을 나누는 자리여서 그런지 전혀 추운지 몰랐다”면서 “5천 만 국민 모두가 장기기증운동에 함께할 때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미국서 제21회 지도자대회 개최

고어헤드선교회, 10명 선발, 목회자 자녀들 선별 지원

고어헤드선교회(한국총본부장 홍원권 목사)가 오는 2019년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미국에서 제21회 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고어헤드선교회는 전 세계의 고아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 대회는 목회자들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일부 선별해 초청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견학, 체험, 관광,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꿈을 심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 개발하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방문하게 될 대학은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브라운, 유콘, 보스턴, 뉴욕, 러거스, 템플웨어, 존홉킨스대학 등이다.

이올러 메트로폴리탄뮤즈, 센트럴파크, 록펠러센터,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토머스 에디슨 박물관, 독립기념관, 백악관, 청교도의 발자취 등 다양한 장소들의 관광도 진행된다.

접수는 인터넷(www.goaheadkorea.com/21usahtm)으로만 이뤄지며, 12월 31일 마감한다. 목회자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접수순으로 10명을 선발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목회자 자녀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호텔과 교회사택 등에서 묵으며 다양한 음식 또한 접할 수 있다.

행사비용은 1인당 350만 원이 소요되지만 고어헤드선교회가 240만 원을 지원해 실제적으로는 1인당 110만 원만 부담된다.

구세군, 전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전달식

한국구세군(김필수 사령관)은 지난 12월 21일(금) 금융감독원과 금융기업들과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의 생활개선, 복지시설 공간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나눔’은 8년째 이어 왔으며 올해는 11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소외계층 후원 및 전통시장 활기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생활물품을 구매해 전국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거나 생활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꿈꾸는 자리’ 사업을 위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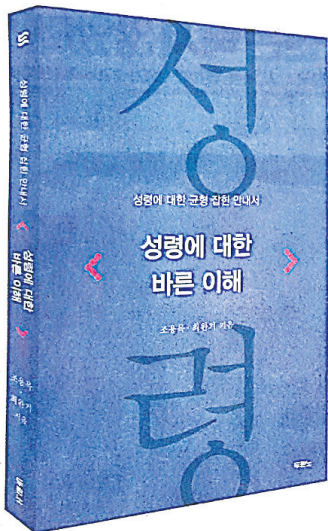
용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금융감독원을 포함 25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고 누벨앙상블빌라모니의 연주를 시작으로 역사어린이합창단과 구세군 유스 브라스밴드의 아름다운 축하공연으로 나눔의 자리를 빛내주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아름다운 나눔’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금융권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품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금융권 공동의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성령충만한 사역 위해 뜨겁게 기도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12월 17일(월) 오전 11시 확관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 앞서 박건 목사의 찬송 시간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겸 총무 김경근 목사의 사회, 김리함 목사의 대표기도, 강태순 목사의 성경봉독, 최월성 목사의 색소폰 연주, 서기 정진균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왕상 2:1-3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은 말씀중심, 성전중심, 기도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았고, 또한 자손손 형통의 복을 받았으므로 인천지방회 회원들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에게 은혜

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어 이한숙 목사의 한글기도, 블루밍중창팀의 한글송, 사회자의 광고,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회는 고에스터 목사의 인도로 첫째 나라와 민생안전을 위해, 둘째 교단의 발전을 위해, 셋째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회원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였다.

기도회 후 확관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었으며, 식사 후 회원들은 준비한 송년선물을 서로 교환하였다. 지방회모임 토론 및 회의(안건) 시간에는 서기의 회원점명, 총무의 총무보고, 회계의 재정보고, 부회장의 추진사항 보고(임원회의), 회장의 안건 및 토의(법정적 안건), 회장의 기도로 지방회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12월 17일(월) 오전 11시 순복음비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전하세 목사의 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중경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설교, 재무 안재봉 목사의 한글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왕하 3:13-20 말씀을 본문으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제사의 설교를 통해 "전쟁의 날에 물이 없을 때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만민의 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엘리사의 예언을 믿고 골짜기에 구덩이를 판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하지 말고 절대공정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리새 때 물도 얻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처리를 한 후에 순복음비전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뷔페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풍성한 선물이 준비된 제1회 찬양경연대회를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이어 식사대화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고, 회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바자회용품을 내놓고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구입했으며 수익은 선교비로 섬기기로 하였다.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연합회대표회장

 온재천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후원계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영희 목사(충남도대표)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이심훈(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김원진 목사, 황기식 목사, 노선웅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김원진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임정대 목사, 차홍식 목사, 김기형 목사, 권필희 목사, 유현희 목사, 이덕희 목사, 홍석용 목사, 김성권 목사

김주섭 목사, 정병환 목사, 김형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재두 목사, 박성화 목사, 이기언 목사, 장한원 목사, 홍석용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회원 아산시 350교회 교역자

박성민 목사, 박성화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권필희 목사, 정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805937-04-007183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연금사고 대응, 신년모임 준비

제67차 총회 제8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웅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8회 임원회가 지난 12월 18일(화) 오전 11시 은혜외승리교회(담임 이은승 목사)에서 열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보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연금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사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무 신재영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특송, 회계 조병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은 특별히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조병희 목사는 이날 히 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만민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대속의 주님을 믿고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아울러 추위에도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각종 송구영신 행사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는 시역자들을 격려하고 영육간의 건강

함을 위해 기도했다.

의장 임웅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사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신재영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정책위원장 세미나 및 기도회, 총회목대원 2018 하반기 계절학기, 전국여교역자국 2018 송년예배, 2018년도 총회신학교, 총회목대원 졸업예배, 2018년도 여학생 사바신학연구원 졸업예배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실행위원 변경 인준 건과 국장 변경 건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노숙자선교회 지원요청 건과 목사고시, 교경중앙협의회 46차 정기총회, 2019년도 시무예배 및 제67차 총회 4회 실행위원회 준비사항 등이 보고되었다.

강원도 고성에서 송년월례회 겸 야유회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2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화진포에서 송년월례회 겸 야유회를 가졌다.

간간이 흩뿌리는 겨울비를 뚫고 차량 2대에 나누어 몸을 실은 회원들은 속초 중앙시장에서 진한 황태국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목적이인 화진포 콘도로 향했다.

해변 백사장에 맞닿아 있는 콘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겨울 바다를 보며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잠시 휴식을 갖고 자리를 정돈한 후 예배 및 월례회를 진행하였다.

1부 예배는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조광선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사 28:23-29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크던 작던 목회를 할 때 상처 받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문기도를 드렸던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올 2019년의 삶과 목회 그리고 지방회의 발전을 위하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한 후 회계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윤장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의 사회로 각종 회부처리를 하였는데, 특히 안건토의를 통하여 월례회가 없는 달에도 정기적으로 기도회 모임을 가질 것을 결의하였다.

이튿날 새벽에는 인근에 있는 거진양분교회(담임 황동운 목사)에서 새벽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진포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동해 일출을 맞이하며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하였다.

맛있는 패운탕으로 아침식사를 마친 회원 일행은 화진포 주변에 있는 김일성 별장과 생태박물관 등을 관광하였는데 특히나 박물관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해금강 및 금강산 봉우리를 조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번 여행으로 지방회 회원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실제적인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교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웅재 목사
총회장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교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진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광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전동용 목사 (세스미교회)	김종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갑 목사 (전주은혜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제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양민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안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진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사복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성현 목사 (영강교회)	백영자 목사 (복음순복음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중앙교회)	최경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교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평교회)	박종열 목사 (오정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성호교회)	임영광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양은혜 목사 (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김연옥 목사 (영광진리교회)	이희수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 (서명대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원우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영평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임봉교회)	정예스터 목사 (예수왕기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삼일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한국기독교연합, 클린 서울역 출범식

노숙인들, 스스로 앞장서 자정 자립 결의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2월 11일(목) 서울역 신생교회(담임 김원일 목사)에서 '노숙 형제들과 함께 가는 클린 서울역 출범식'을 갖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앞장 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함께 진행한 이날 클린 서울 발대식은 남대문교회, 서소문교회, 한양교회 등 서울역 인근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노숙인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원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 예배는 실로암찬양단(단장 장분수 장로)이 식전 행사를 진행한 후에 최루분 목사(한양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경목 목사(서소문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소프라노 김혜영 교수의 특송과 손유탁 목사(남대문교회)의 설교,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장현일 목사(해돋는마을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2부 행사는 이창호 감독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실태를 담은 동영상 시청하고, 공동대회장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어 다시서기센터 연영희 씨와 신생교회 이상재 씨를 모범 노숙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어 노숙인 자정위원으로 선정된 이상영, 안찬혁,



김원일 씨가 자정 선서를 하고, 한때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해 건축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중 집사가 간증을 전했다.

이어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이 축사를, 한기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를 대신해 공동회장 김효종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클린서울역(TF팀) 소개와 금주운동 및 폐회송을 부르고 박우관 목사(알뜰충북자치국민운동본부장)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참석한 노숙인들에게는 겨울 추위를 녹일 만 요 300장이 성탄절 선물로 전달되었다.

'클린 서울역 운동'은 서울시의 행정력과 공권력의 치외법권 지대로 변모한 서울역 주변을 노숙인 스스로가 앞장서 정화 자정운동에 참여토록 하고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울역 등 특정 지역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운동이다.

마음을 지키는 근원은 사랑의 힘

조광동 목사 초청 새사랑세미나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 대표 조광동 목사는 지난 12월 13일(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여전도회관 14층 1강의실에서 '조광동 목사 초청 새사랑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창모 목사의 인도로 이목자 목사의 대표기도, 이혁진 목사의 합심기도, 김근배 목사의 하모니카 연주, 전하라 목사·하늘소리찬양단의 연주, 험시바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조광동 목사가 강의를 나눴다.

조광동 목사는 요 13:34-35 말씀을 본론으로 한 '사

람의 힘을 길러라'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오늘날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근원은 사랑의 힘을 길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 사랑의 힘을 길러 서로 사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일 목사의 헌금기도, 정형기 목사의 광고 후 이석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시랑강사 조광동 목사는 30여 년 전부터 새사랑에 대하여 연구·강의해 온 사랑전도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새사랑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 열려

"생명나눔의 주인공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하모니"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가 12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더플러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8 도너패밀리(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을 진행했다.

동 본부가 주최하고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부회장)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으로 생명나눔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 도너패밀리들을 초청해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 첫 행사 이후 6번째로 열린 올해 행사는 특별히 '생명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려 도너패밀리들

과 이식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생명의 하모니'라는 주제에 맞게 생명을 주고받은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꾸몄다. 지난 2014년 뇌사 장기기증인으로부터 취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승진 씨와 2015년 신장을 이식받은 발류아티스트 신명안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날 도너패밀리들에게 감동적이고 유쾌한 무대를 선물했다.

이번 '도너패밀리의 밤'에서는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들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사)월드뷰티핸즈 우수기관으로 표창

마포구 주최, 최에스더 회장도 함께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더)가 지난 12월 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주최한

'2018 마포구 자원봉사자의 날 'V-퍼레이드'에서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월드뷰티핸즈 장현일 이사장이 감사장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최에스

더 회장(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 학부 교수)이 각각 표창장을 받았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소외된 어르신과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이며 부명한 재정운영과 지속적인 뷰티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의 신뢰기관으로 행정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www.wbhands.org)이기도 하다.

WBH는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월드뷰티핸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서울을 비롯한 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경기 전북 인천 지회가 준비하는 등 전국적으로 뷰티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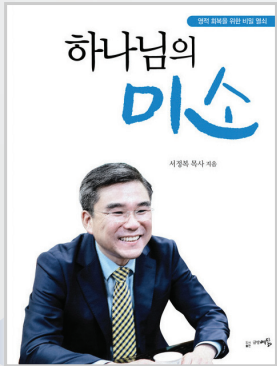


구입문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화제의 신간 / 영적회복을 위한 비밀 열쇠

뜨거운 찬양 시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돌아봄의 시간 <하나님의 미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좌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항상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끼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 강조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머리말 중에서
구입문의 (063)625-0690

경기북부청 경목위원회 제3차 총회

성탄절 트리 점등식도 가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목회장(위원장) 박남웅 목사는 지난 12월 3일(월)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목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종 회부처리와 신 임원을 선출했다. 1부 예례 후 2부 총회는 경목회장 박남웅 목사의 인사말, 국민이례, 성원보고, 개회선언, 회순제택, 전회의록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총회는 감사보고 18년 각종 보고, 예산안 심의, 임원선출 및 인준, 새임원 인사, 회의록제택 후 폐회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고분 원종복 목사 △위원장 김용하 목사 △서기 양종환 목사 △회계 박성종 목사 △감사 김영실 목사

계속해서 경찰청 로비에 설치된 성탄절 트리 점등식이 거행됐다. 최혜영 경찰청장의 인사말, 신우회 찬양대의 찬양, 통합피어선 총회장 김희선 목사가 성탄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삼하 7: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세상, 이곳 경기북부 전지역에 빛을 밝히시자 점등예식이 때면 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빛을 밝히는 경기북부경찰청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한은행과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과 함께 지난 12월 1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2018 꿈 같은 하루 프로젝트'의 마지막 행사로 서울스카이 전망대 및 영화관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꿈 같은 하루 프로젝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신한은행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문화공연 나눔행사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뮤지컬,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공연과

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50여 명이 참석해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전망을 감상하고 영화 '베일리아게인'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신한은행은 영화 속 주인공인 강아지 '베일리'처럼 소외계층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해당 영화를 관람 작품으로 선정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온 25인 승합차

저는 춘천오순절교회기도원 원장 김지훈 목사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1급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교회에서 열린 박영수 목사 초청 가족세트 능력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넘치는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 다. 박영수 목사가 능력전도 하는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어 저 역시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영접기도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분간만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 받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곧 영접기도를 따라 하고 함께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드릴 테니 이름을 알려 주세요. 생년월일 가족 이름을 적어 주세요"라고 하며 연락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 시키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3개월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찾아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믿음이 좋은 독지기가 25인 승합차를 선물로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 처량이 필요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전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25인 승합차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예수님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아멘. 어느 날 춘천에서 민성숙 권사가 호주로 단기 선교를 간다며 선교비를 부탁해 저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단기선교는 취소되었고 민성숙 권사는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도 함께 시의원에 당선되도록 기도드렸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가 연탄이 필요할 때에는 민성숙 권사가 연탄은행 이사장이 되어 우리의 사정을 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걱정 없이 연탄을 가져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춘천오순절교회기도원 (1급시각장애인) 담임 : 김지훈 목사

●가족세트전도 안내 동영상 보기 <http://blog.naver.com/bys2573>
■세미나 집회 연락처 031-592-1691 중보기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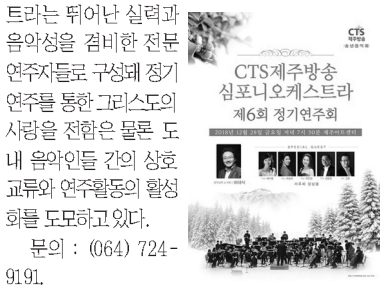


CTS제주방송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 전속 심포니오케스트라(단장 홍혜자)는 12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제주대학교 해대식 교수의 지휘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Majesty)',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페데리코의 탄식(Lamento di Federico)', '이기고 돌아오라(Ritoma vincitor)', '임맞춤(II bacio)' 등 대중들이 평소에게 자주 들었던 찬양

과 클래식을 비롯한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였다. 특별 출연으로는 도내 최초의 성악양상을 라루체 앙상블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제주방송은 도내 기독교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6년 연속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연주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3년 창단된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뛰어난 실력과 음악성을 겸비한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정기연주회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은 물론 도내 음악인들 간의 상호 교류와 연주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의 : (064) 724-9191.



기아대책, 제6회 건강나눔그림대회 시상식 개최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12월 17일 서울 중구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제6회 건강나눔그림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GC인삼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기아대책 건강나눔교육을 받은 5-7세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나눔'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접수 받아 본선에 오른 63명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올해 그림대회에는 1천 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KGC인삼공사 사장상을 수상한 김미르 군(5세)은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담은 그림을 출품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응림 기아대책 부회장과 KGC인삼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정관장의 홍이장군 2단계가 부상으로 증정됐다. 전응림 기아대책 부회장은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KGC인삼공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대회가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을 배운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2012년 1만 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나눔교육을 시행했으며, 해마다 꾸준히 인원이 증가해 올해는 7만 8,000여 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나눔교육은 KGC인삼공사가 후원하는 기아대책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깨끗한 생활, 건강한 식생활, 약물오남용 예방, 미세먼지 안전과 나눔을 주제로 한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051)803-3927
- F A X: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062)952-7004
- F A X: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1)567-3004
- F A X: 041)575-3171
- e-mail: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이제인 장로 // 은혜와진리교회

내 삶의 향기가 되옵소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받은 삼키고
울고 싶은 날이 있거든 웃음에 던지고
참지 못할 분노가 차면 하늘을 향하렴.
그리고 너무 많이 섰을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할 말 참으시고, 들었던 때도 내려놓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애타는 간절함. 이를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저희들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네 들리는 귀는 손바닥으로 막지 말거라.
네 보이는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
타오르는 입술은 찬양으로 녹이고,
가다듬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거라.”
예, 하나님, 난 참으로 행복합니다.
마음 속 깊이 하나님의 샘이 솟아 오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꽃 한송이 고이 바쳐 들고서 주님을 뵈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향기가 되옵소서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취임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한국교회 보호에 최선을 바쳐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6대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상임회장 김수을 목사 취임감사에베가 지난 12월 15일(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서익수 목사(개혁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안영로 목사(통합 중경총회장)는 삼상 12:1-5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남겨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송태섭牧사는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만난 사제지간인데, 이렇게 큰 교계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이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히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큰 일을 남길 수 있는 한장총 대표회장으로서 사명감과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부 예배는 정형희 목사(부회장)의 기도, 서영국 목사(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성경봉독, 김남심 목사(합동동신 총회장)의 특별기도, 심진서 목사(

개혁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인기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에서 정상업 목사(개혁총연 총회장)는 회원교단을 대표하여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상임회장 김수을 목사에게 취임축하패를, (사)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취임축하패를 각각 전달하였으며 송태섭 목사가 시무하는 경원교회에서 꽃다발 증정 시간을 가졌다.

송태섭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안영로 목사님과 같은 스승, 그리고 경원교회 성도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장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상임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수을 목사는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님과는 최근 2, 3년간 동성애대책활동, 차별금지법제정반대활동, 종교인괴세법제정에 대한 대책활동 등을 함께 했다.”면서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여 지속적인 교회보호 활동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축하의 시간에는 제24대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사)한국기독교연합 직전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축사를 하고, 한장총 제30대 대표회장이며 한기연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와 제36대 대표회장인 유종현 목사가 격려사를,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최희범 목사가 권면을 했다.

이어 서기 이재천 목사의 진행으로 임원, 감사 및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인명 순서가 있었으며 사무총장 김영일 목사(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설

국가안보 위해 성도들의 기도 절실

최근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을 비롯 중요한 연합훈련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실시될 기동 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은 미군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카리졸브(KR) 훈련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연습(CPX)으로 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정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취소 및 축소로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인스드(Keen Sword)’ 연습을 실시했고, 이번 달에는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홋카이도에서 탄도미사일 공격과 특수부대의 침투를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 ‘아바시쿠라’ 연습을 실시하는 등 미·일 연합훈련은 확대·강화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동북아에서 미군의 주요 파트너가 한국군에서 일본 자위대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평화협정 초안을 내놓고 학술회의를 열고 비핵화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각종 제안들을 쏟아놓았다. 비

핵화 100% 완료가 확인되고, 핵 재개발을 완벽하게 감시할 장치가 갖춰지기 전에는 평화협정은 무의미하다. 절대무기인 핵폭탄 한 방이면 대한민국 안보는 끝장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돌아킬 수 없는 핵폐기(CVID)나 완전한 핵폐기(FD)를 강조하면서, 그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비핵화의 ‘절반’ 단계에서는 제재 해제도 안 된다.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돼도 핵 폐기 완료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나마 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평화협정 논의가 아니라, 북핵 폐기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다. 현재 북한이 비핵화의 출발점인 핵 리스트 신고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초안에 비핵화 완료 후 주한미군 감축 조항까지 운운하는 것은 북한이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등 핵 협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남북대화도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서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이 오만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략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일천이백만 성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관광객 유치에 종교편향 있어선 안 돼

관광공사는 지난 4월부터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이란 명목으로 국가예산 21억 3200만 원을 들여서, 무슬림 친화식당을 운영하고 할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관광지에서 기도실을 운영하고, 무슬림 관광을 위한 해외 홍보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할랄식당’이나 레스토랑을 늘린다는 것인데, 무슬림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까지 와서 할랄식당을 맛보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굳이 할랄식당과 할랄식당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하나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하는 문제인데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 본 사람들에게 의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기도하러 달려가는 사람들이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까지 무슬림 기도처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으며,

테러리스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관광공사가 특정 종교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경제적 측면만 강조한 종교편향적 관광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과 함께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관광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대로 맛보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관광공사는 지금까지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종교편향적인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다듬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 음식을 맛보는데 자신들의 문화와 기준을 들이댄다면 이는 관광이 아니라 정치요, 압박이요,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행정당국에서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9년 1월 7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웅재
총무 목사 신재영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